Ⅲ. 보험산업 현황 및 전망

1. 생명보험

가. 금융위기 후 생명보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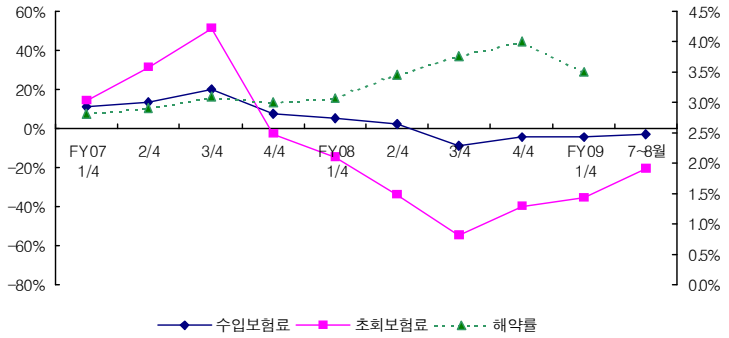
□ FY2008 생명보험 산업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FY1998, FY200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경기침체 및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보험수요 위축과 해약증가로 FY2008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0% 감소함.

○ FY1998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4.6%의 수입보험료 감소를 경험했으며, FY2001에는 제도변화 등의 일시적 효과로 9.5%의 감소를 나타냄.

□ 2009 4~8월에도 수입보험료 감소세(-3.8%)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초회보험료 감소세와 해약률 증가세는 소폭 진정되는 모습임.

<그림 III-1> 보험료 성장률 및 해약률 추이



○ 분기별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FY2007 3/4분기 19.7%로 정점을 기록한 뒤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FY2008 3/4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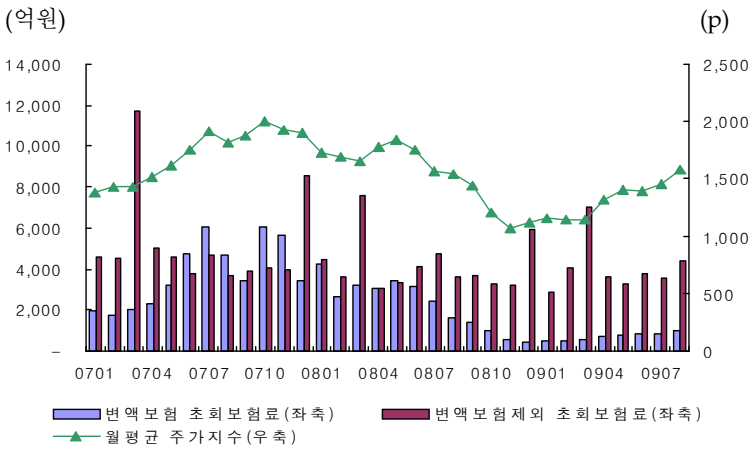
○ 보험 신규수요를 반영하는 초회보험료는 FY2007 4/4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진정되는 양상임.

○ 가파르게 증가하던 해약률은 FY2009 1/4분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0.5%p 높은 3.5%를 유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강도는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FY2007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변액보험은 FY2008 주가하락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주식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가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변액보험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으나 시장리스크에 대한 경계심리가 지속되면서 회복세는 미미한 수준임.

<그림 III-2> 변액 초회보험료와 주가지수



나. 사망보험 현황과 전망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08 0.6% 감소한 후, 2009 4~8월 3.4%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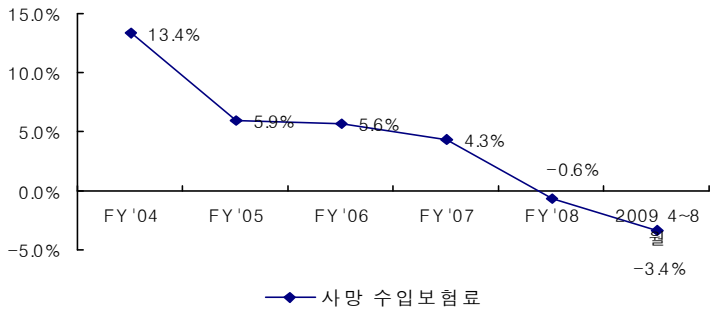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해약률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 감소에 기인함.

– 사망보험 계속보험료는 FY2008 0.2% 감소한 데 이어 2009 4~8월 3.8%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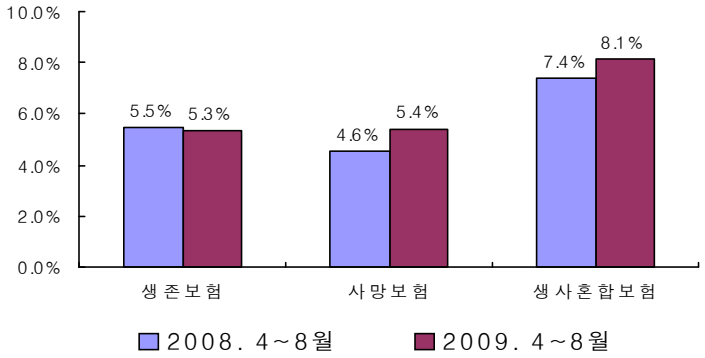
– 사망보험의 경우 계속보험료 비중이 98%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해약률 증가에 의한 수입보험료 감소현상이 두드러짐.

– 2008년 4~8월 해약률은 4.6% 수준이었으나 2009년 4~8월 들어서는 5.4%로 0.8%p 높아짐.

<그림 III-3> 사망보험 연간 성장률 추이



<그림 III-4> 개인보험 종목별 해약률



○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해 왔던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9년 들어 증가하는 모습임.

– 사망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9년 이후 대형사의 종신, 통합형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크게 성장하였으나(2009 4~8월 : 21.6% 성장) 초회보험료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

<표 III-1>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계속보험료 비중

(단위 : %)

	FY08 1/4	2/4	3/4	4/4	FY09 1/4	7~8월
수입보험료	1.9	1.1	-2.2	-3.3	-3.8	-2.6
초회보험료	-26.1	-22.8	-26.6	-17.7	7.0	42.3
계속보험료	2.5	1.6	-1.7	-2.9	-4.0	-3.3
계속보험료 비중	98.5	98.5	98.5	98.2	98.4	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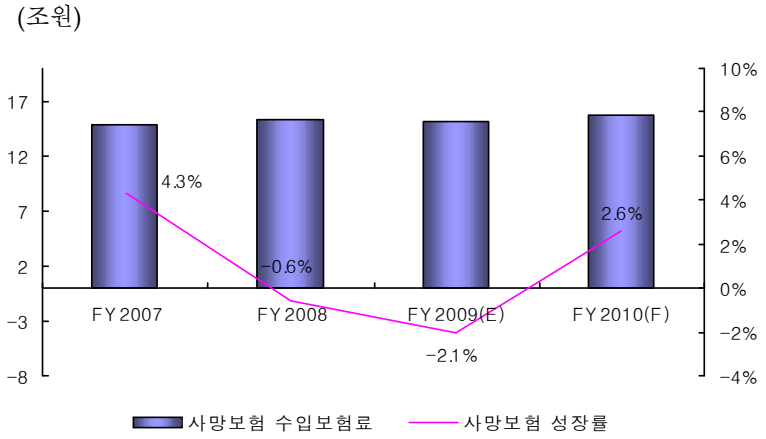
□ FY2010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경기회복과 함께 해약이 진정되고 전통적 보장성 보험과 실손형 건강보험에서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2.6%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투자형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형 보험상품에 비해 경기변동성이 작은 보장성 보험시장을 확대하려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 2009년 10월 실손형 건강보험 상품표준화 시행으로 생명보험 실손형 건강보험상품의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향후 건강보험 부문에서의 소폭 성장이 예상됨.

○ 그러나 사망보험의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림 III-5>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표 III-2>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원, %)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수입보험료	278,492	294,199	306,813	304,888	298,619	306,238
성장률	5.9	5.6	4.3	-0.6	-2.1	2.6

주 : 사망보험은 변액종신을 포함함.

다. 생사혼합 · 생존 · 변액보험 현황과 전망

□ FY2008 생사혼합·생존·변액보험은 변액보험시장 위축과 함께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었으나 4/4분기 단기 저축성 상품인 생사혼합보험 판매가 늘면서 성장률 하락세가 진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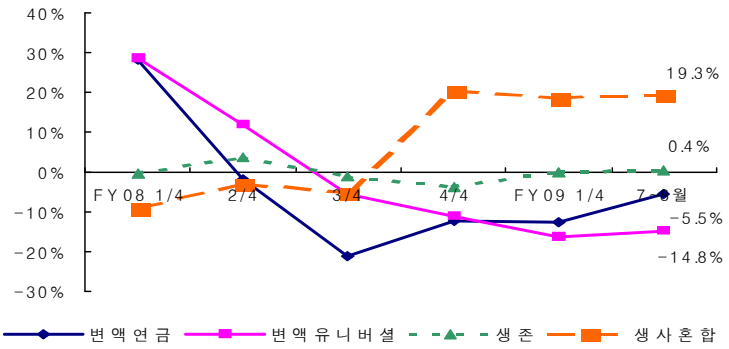
○ FY2008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초회보험료는 각각 63.1%, 63.0% 감소했으며, 2009 4~8월에도 여전히 높은 67.7%, 74.1%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1,0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던 주가지수가 1,700 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저축성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FY2009 1/4분기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초회보험료는 최고를 기록했던 FY2007 3/4분기에 비해 각각 15.8%, 13.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변액유니버셜의 신규수요 회복이 변액연금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6> 생사혼합·생존·변액보험 연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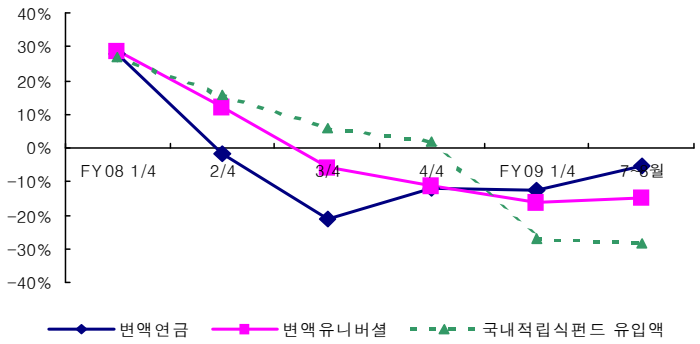
<표 III-3> 생사혼합·생존·변액보험 성장률 및 계속보험료 비중

(단위 : %)

	FY08 1/4	2/4	3/4	4/4	FY09 1/4	7~8월
수입보험료	9.5	3.1	-7.6	-3.3	-3.9	-1.4
초회보험료	-14.8	-40.4	-63.3	-41.6	-40.5	-16.4
계속보험료	16.3	16.6	10.1	7.5	3.7	1.1
계속보험료 비중	82.8	86.3	90.4	86.8	89.4	87.7

○ 변액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형펀드 성장률을 살펴보면 FY2009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어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회복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7>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 성장률 추이



□ 반면 시중금리 하락과 함께 단기 저축성 상품인 생사혼합보험이 상대적인 고금리로 인기를 끌면서 FY2008 4/4분기 이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FY2008 4/4분기에는 20.2% 성장하였으며, FY2009 1/4분기 및 7~8월에도 각각 8.5%, 19.3%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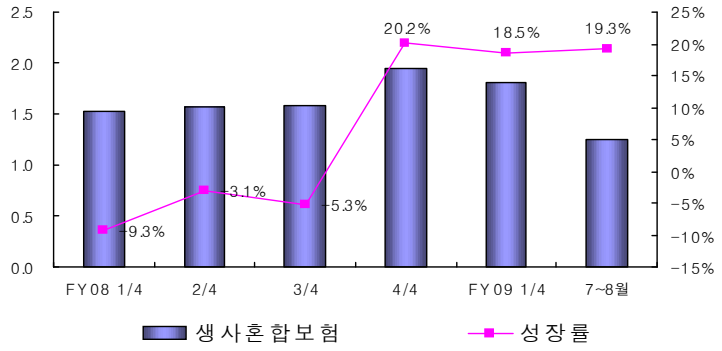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부동자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업권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보험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양상임.

○ 은행권 정기예적금 상품의 경우 FY2008 3/4분기 20.0% 증가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신권의 MMF 또한 FY2008 4/4분기 39.8% 증가한 바 있음.

○ 생사혼합보험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시중 금리 인상과 함께 타 업권의 대체 상품이 등장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은 장담할 수 없음.

<그림 III-8>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조원)



□ FY2010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면서 변액보험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로 주춤했던 연금 수요도 살아나면서 저축성보험은 4.9%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주가폭락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FY2007과 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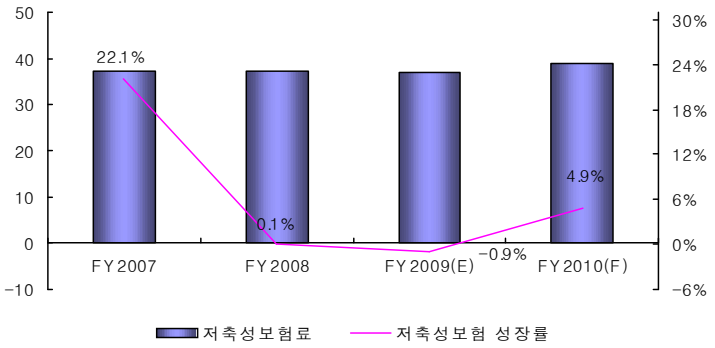
○ 또한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경우 주가상승 시 해약을 고려하는 가입자도 증가할 수 있음.

○ 반면,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연금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림 III-9> 생사혼합·생존·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전망

(조원)



<표 III-4> 생사혼합·생존·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원, %)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159,305	180,587	223,900	220,147	217,242	229,685
	성장률	21.3	13.4	24.0	-1.7	-1.3	5.7
생사혼합 보험	수입보험료	109,725	124,213	148,345	152,491	152,050	157,874
	성장률	27.9	13.2	19.4	2.8	-0.3	3.8

주 : 생존보험은 변액연금을 포함, 생사혼합보험은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

라.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08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지속적인 계약 이탈과 업권간 경쟁심화로 인한 퇴직연금의 제한적 성장으로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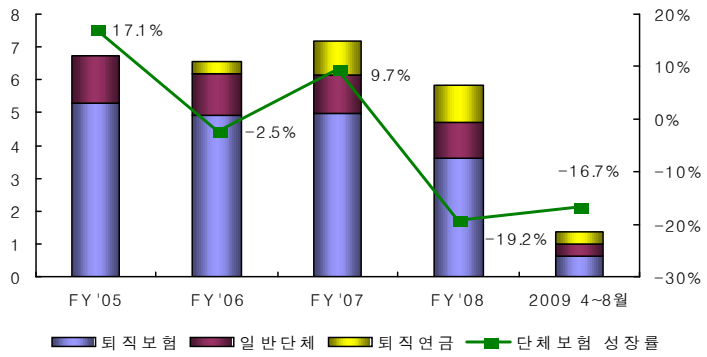
대비 19.2% 감소함.

○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던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신규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에서의 계약 이탈이 가속화됨.

○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심화로 생명보험권의 적립금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보험에서 이탈한 계약이 퇴직연금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면서 단체보험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 III-10>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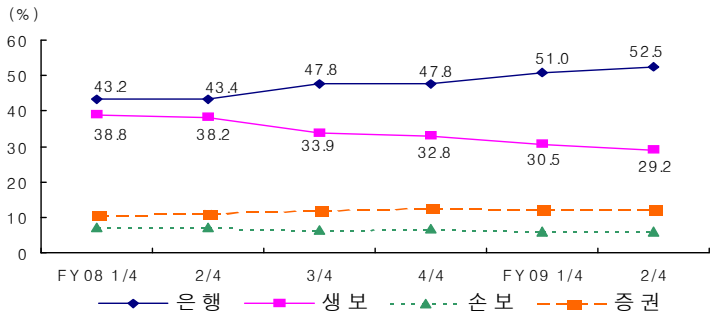
(조원)



○ 생명보험의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2007년 9월과 2008년 9월에는 각각 48.8%, 38.2%에 달했으나 2009년 9월 들어서는 29.2%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반면, 은행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09년 9월에는 52.5% 수준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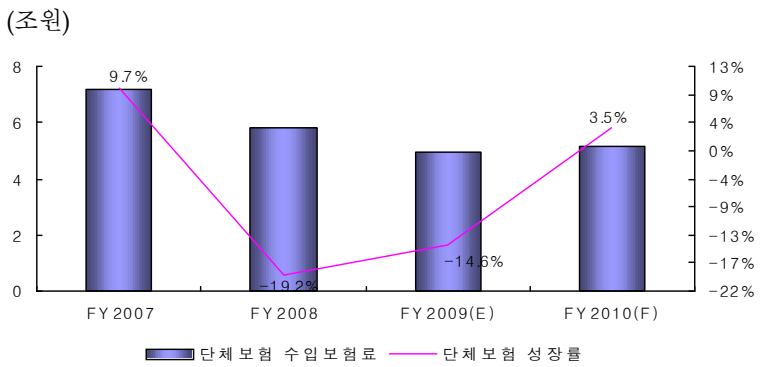
<그림 III-11> 기관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추이



□ FY2010에도 업권간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일반단체보험 등의 해약 감소, 제도개선 등에 의한 전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 확대로 단체보험은 3.5%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임.

○ 퇴직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등 퇴직연금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그림 III-1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



□ 2010년 12월 말 퇴직보험제도가 종료될 것이므로 상당수 기업들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단체보험 성장률은 퇴직보험 해약 환급금 중 어느 정도가 생명보험회사의 퇴직연금으로 다시 유입되느냐에 의존할 것임.

○ 2009년 6월말 현재 생명보험회사의 퇴직보험 책임준비금 규모는 17조원에 달하며 이 중 40~50% 가량이 2010년 중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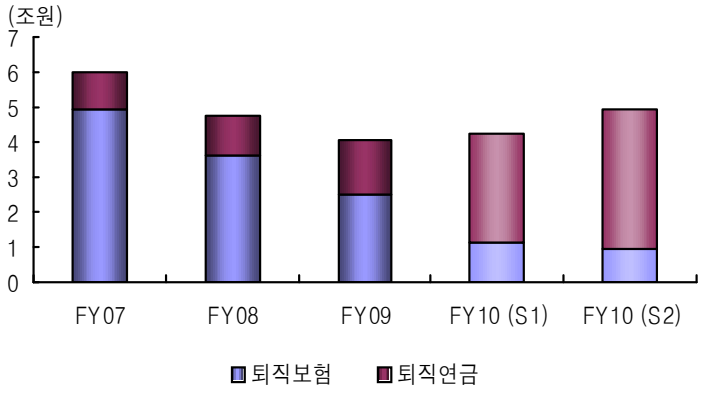
○ 퇴직연금 전환 총액 중 일부는 중간정산 또는 타업권으로 유출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권으로 유입되는 퇴직연금 규모는 최근 평균 유입 비중인 52%대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퇴직연금 전환비율을 40% 및 50% 수준으로 두고 생명보험권 유입 비중은 50% 및 55%로 가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체보험은 3.5%에서 최대 17.2%까지 성장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S1)로 보여지는 시나리오는 퇴직연금 전환율 40%, 생명보험권 유입 비중 50%이며, 이 경우 단체보험 성장률은 3.5%로 나타남.

○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S2)인 퇴직연금 전환율 50%, 생명보험권 유입 비중 55%를 가정했을 경우 단체보험 성장률은 17.2%로 전망되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림 III-13>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표 III-5>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원, %)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수입보험료	67,201	65,550	71,898	58,087	49,606	51,321
성장률	17.1	-2.5	9.7	-19.2	-14.6	3.5

<참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유입액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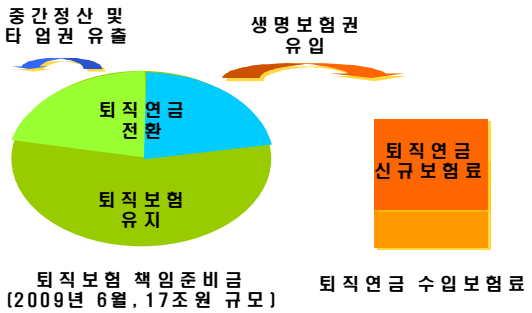
□ 2009년 6월 현재 약 17조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퇴직보험 책임준비금과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이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아직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적극적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대략 40%~50% 정도로 가정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에 의한 퇴직연금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기존 계약에서 지급되는 지급보험금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의 51%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50%, 55%로 가정함.

○ 이러한 가정과 함께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퇴직보험 해약환급금, 퇴직연금 지급보험금 등을 추정하여 FY2010에 전환 가능한 퇴직보험 책임준비금 규모와 이로부터 전환되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를 추정하였음.

<그림 III-14> FY2010 퇴직보험 책임준비금의 퇴직연금 전환과정



마. 생명보험 종합

□ FY2010 생명보험산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해 성장세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 후반 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변액보험의 경우 소비자들이 금융위기로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안정되더라도 FY2007과 같은 폭발적 수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보장성보험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있으나 전통적 보장성 보험의 저성장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개인부문의 일반연금에서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체보험인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표 III-6>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종합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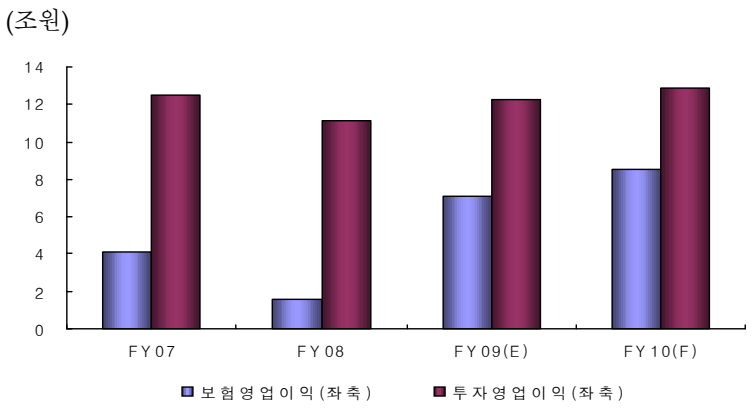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 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2003	447,161	7.6	56,764	-24.5	503,925	2.7
FY2004	480,140	7.4	57,366	1.1	537,506	6.7
FY2005	547,521	14	67,201	17.1	614,722	14.4
FY2006	598,999	9.4	65,550	-2.5	664,549	8.1
FY2007	679,058	13.4	71,898	9.7	750,956	13.0
FY2008	677,526	-0.2	58,087	-19.2	735,614	-2.0
FY2009(E)	667,911	-1.4	49,606	-14.6	717,517	-2.5
FY2010(F)	693,798	3.9	51,321	3.5	745,118	3.8

□ FY2010 생명보험산업 수익 규모는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소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영업이익은 수입보험료 증가와 해약 감소 등의 요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영업이익도 금융시장 안정성 회복 및 시중금리 인상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과 자산 이익률 상승으로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15> 생명보험 영업이익 전망



2.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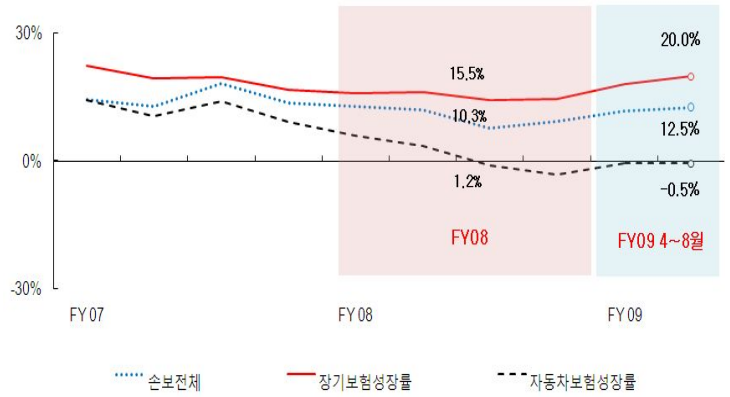
가. 금융위기 후 손해보험산업

□ FY2008 손해보험산업은 자동차보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가 지속됨.

○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와 일반손해보험의 양호한 성장이 경기불황에 취약한 자동차보험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여 손해보험산업은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함.

○ 최근에도 자동차보험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정 효과로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2009년 4~8월 기준 20.0% 급증하는 등 전체 손해보험산업은 FY2008에 이어 고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림 III-1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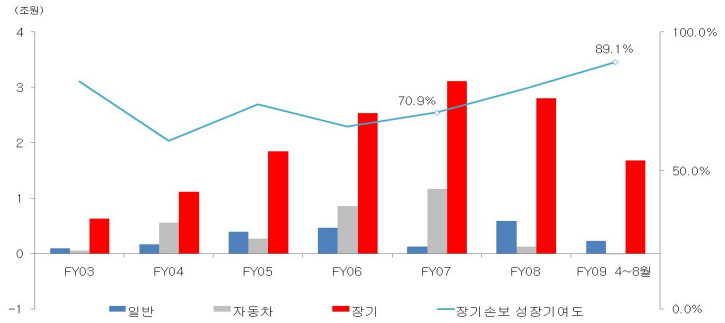


□ 전체 원수보험료 성장 중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장기손해보험의 전체 손해보험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 증가액 중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FY2007에는 70.9%를 차지했으나, FY2009 4~8월에는 89.1%로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할 경우 손해보험산업의 성장률은 FY2008 4.6%, FY2009 4~8월 4.9%로 크게 낮아짐.

<그림 III-17>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및 장기손해보험의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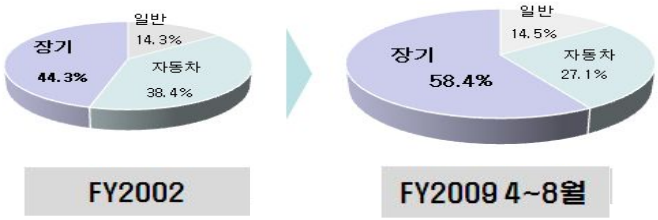


□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손해보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등 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2009년 4~8월 현재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58.4%를 차지함.

○ 반면, 자동차보험은 성장세 둔화 및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인해 FY2008에 처음으로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에 있음.

<그림 III-18> 손해보험 종목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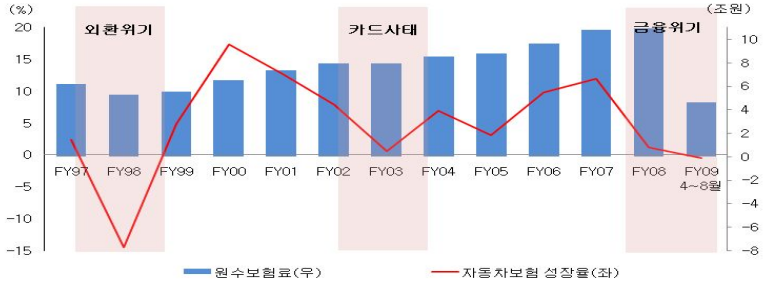


나. 자동차보험 현황과 전망

□ FY2008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및 신차·수입차 판매 부진, 작년 하반기 단행된 요율 인하 효과, 온라인 자보시장 확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성장에 그침.

○ 자동차보험은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시기의 부진 이후 다소 성장력을 회복했으나,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FY2008부터 둔화되어 FY2009 4~8월 기준 -0.5% 성장률에 그쳐 손해보험 종목 중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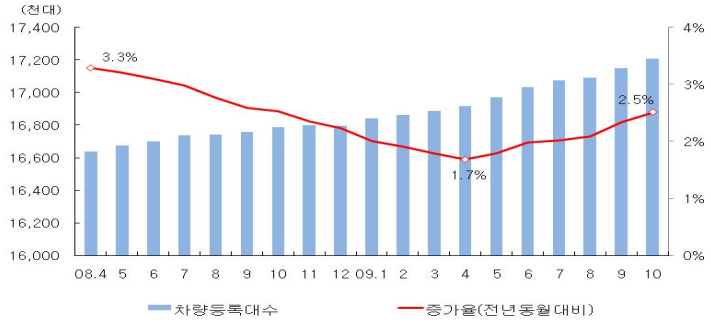
<그림 III-19>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



□ 최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올해 초 시행된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혜택 효과 등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이 상승함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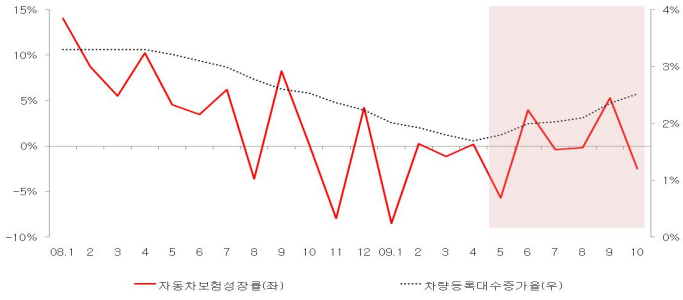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주요 변수인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은 2009년 4월 전년동월대비 1.7%까지 급락한 이후 정부의 신차구입 관련 세제혜택 효과로 10월 현재 2.5%까지 상승함.

<그림 III-20> 차량등록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그림 III-21> 자동차보험 성장률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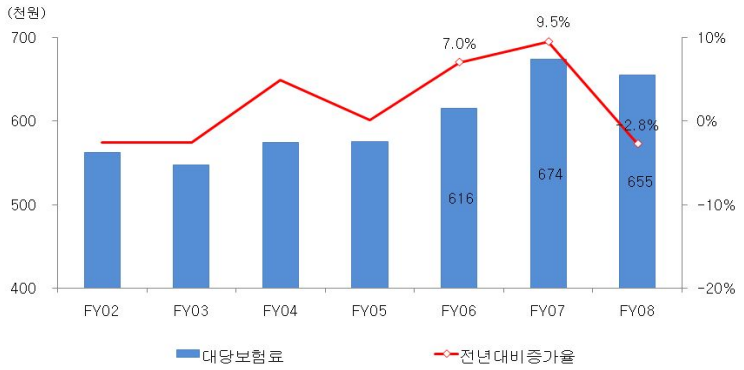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차량등록대수)

○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올해 6월말에 이미 종료되었고,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책도 연말까지만 시행됨에 따라 세제혜택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효과는 내년 초 이후 소멸될 것임.

○ 자동차보험의 대당보험료는 작년 8월에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단행한 요율인하 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65만 5천원 수준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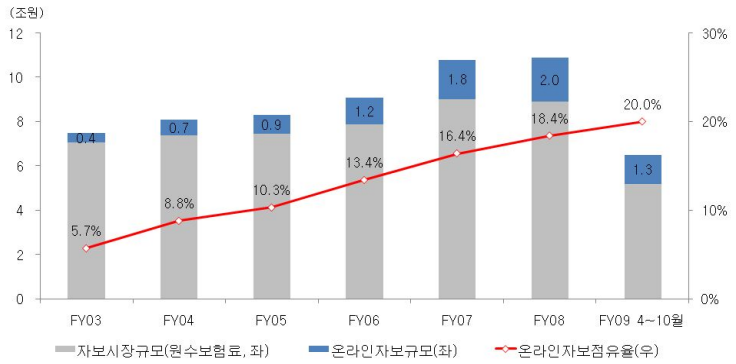
<그림 III-22> 대당보험료 및 증가율 추이



○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비중은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증대되면서 FY2009 10월 기준 20% 수준으로 높아졌음.

- 자동차보험시장 부진 속에서도 직판시장 활성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III-23>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규모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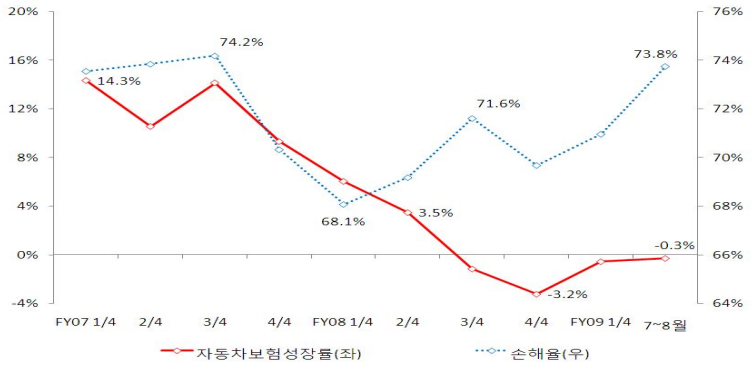


□ FY2008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금융위기와 유가상승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70%를 하회하였으나, 최근에는 유가안정, 차량운행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 증대, 작년에 단행된 요율인하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정 손해율을 크게 초과함.

○ 작년 상반기 고유가 추세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차량운행량 및 사고발생률 감소, 예년에 비해 적었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정부의 강력한 보험사기 단속 조치 등의 효과로 FY2008에는 69.7%의 손해율을 보임.

○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시장 침체에 따른 경과보험료 감소, 유가안정 등으로 차량운행량이 급증해 사고발생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9년 7~8월 기준 손해율이 73.8%까지 악화됨.

<그림 III-24> 자동차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추이



□ FY2009 자동차보험은 성장 여건 악화로 전년도에 이어 성장 정체가 예상되지만, FY2010에는 손해율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초부터 세제혜택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상승 효과가 소멸되고 온라인 자보 점유율 증대, 요일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의 요인으로 FY2009에는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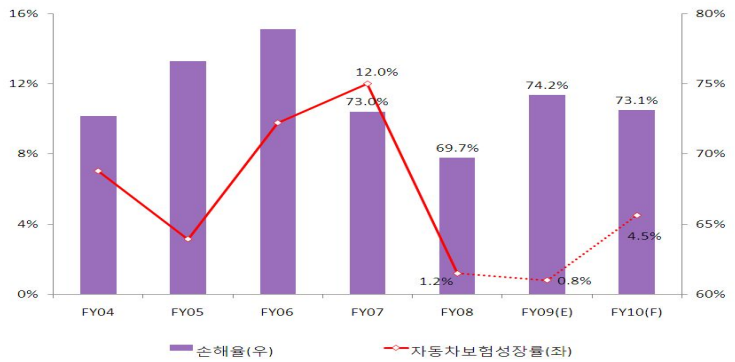
○ FY2010에는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 및 차량 고급화 경향 지속, 손해율 악화와 정비수가 인상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전년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저성장 기조 지속과 차량운행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악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FY2009에는 보험료 성장은 미미한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차량운행 급증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면서 74.2%의 손해율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손해율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FY2010 손해율은 보험료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소폭 하락하겠으나, 전년도와 비슷한 7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I-25> 자동차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전망



<표 III-7>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원수보험료	85,208	87,890	96,492	108,095	109,371	110,246	115,207
성장률	7.0	3.1	9.8	12.0	1.2	0.8	4.5
손해율	72.7	76.6	78.9	73.0	69.7	74.2	73.1

다. 장기손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08 장기손해보험은 건강보장에 대한 수요 증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FY2009에도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정에 따른 특수 효과로 신계약이 크게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 2009년 10월 이후 실손 의료보험 보장한도가 축소(100%→90%)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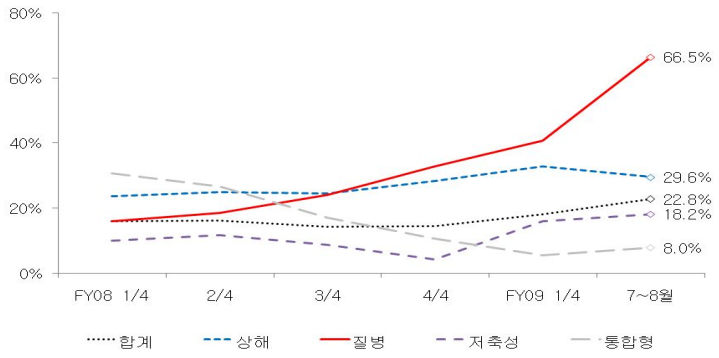
따라 제도 변경 이전에 상품에 가입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회보험료는 FY2009 4~8월 현재 58.9% 성장함.

<표 III-8>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초회보험료 성장률 현황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4~8월	
	원수보험료	초회보험료	원수보험료	초회보험료
통합형 보험	20.6	-23.1	6.5	1.1
질 병 보 험	24.1	129.8	51.3	169.3
상 해 보 험	24.8	36.9	31.5	57.5
운전자 보험	-2.1	-25.9	-6.1	8.0
저축성 보험	8.7	-5.8	17.0	64.6
재 물 보 험	2.8	-0.2	0.4	-3.5
장기손보 계	15.3	14.7	20.0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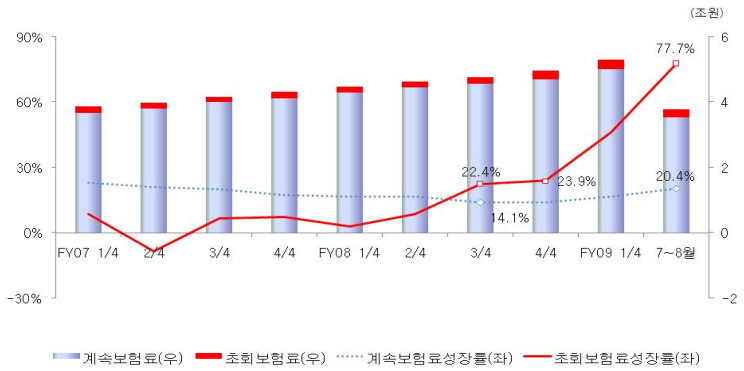
<그림 III-26>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 분기별 초회보험료는 실손 의료보험 보장 한도 축소가 확정된 올해 4월(FY2009 1/4분기) 이후 급증하여 계속보험료 성장률을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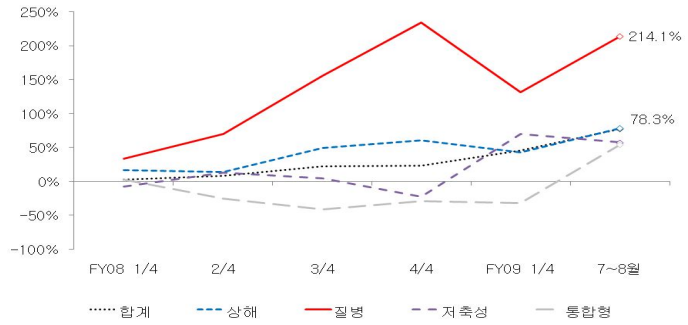
○ 전체 원수보험료대비 초회보험료 비중은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 등 실손 의료보장 상품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FY2008 4.5%에서 FY2009 4~8월 기준 5.5% 수준으로 높아짐.

<그림 III-27>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 성장률 추이



□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저축성보험도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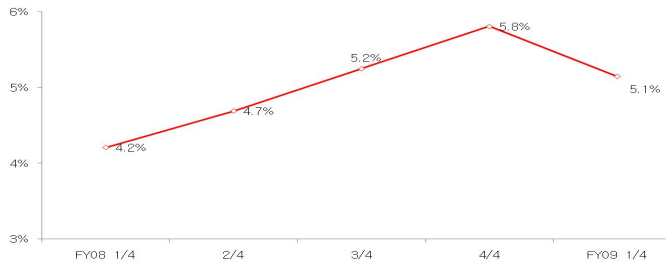
<그림 III-28>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성장률 추이



□ 해약률은 생계형 해약이 많았던 FY2008 4/4분기를 기점으로 하향세를 보여 장기손해보험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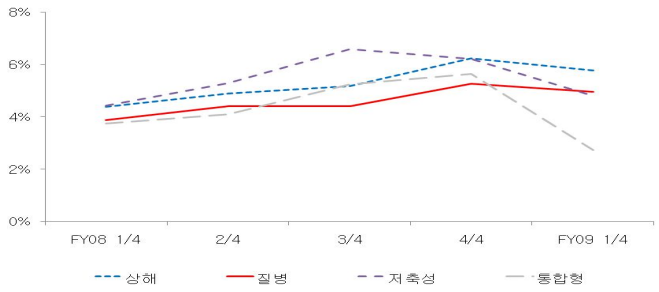
○ FY2009 1/4분기 해약률은 5.1%로 FY2008 4/4분기에 비해 다소 낮아짐.

<그림 III-29> 장기손해보험 해약률 추이



○ 신규로 판매되는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 담보가 축소됨에 따라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은 기존 계약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져 해약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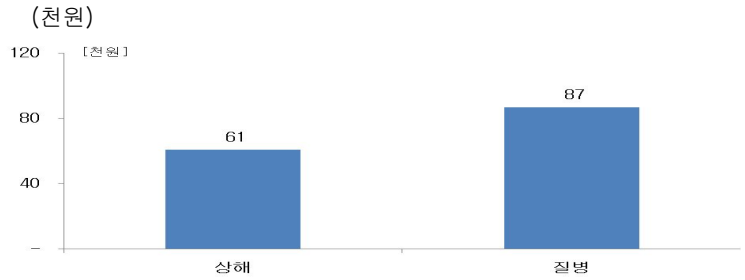
<그림 III-3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해약률 추이



○ 또한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상해보험: 61

천원, 질병보험: 87천원)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해약하려는 유인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림 III-31>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건당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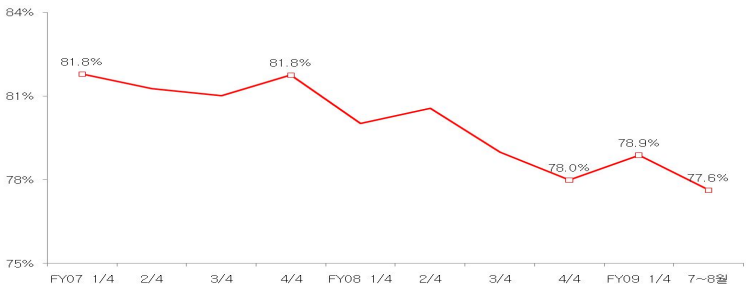


주 : FY2008 초회보험료 기준임.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신계약이 급성장함에 따라 보험료 증가세가 손해액 증가를 상회하고 있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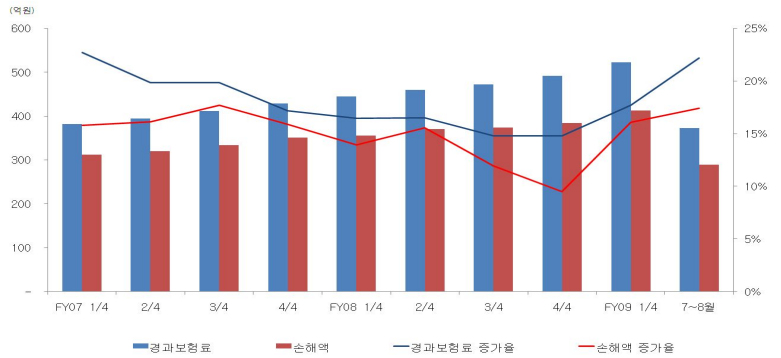
○ FY2009 1/4분기 손해율은 78.9%에 달했으나, 7~8월에는 77.6% 수준으로 낮아짐.

<그림 III-3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 장기손해보험의 실적호조로 경과보험료 증가율이 손해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전체 손해율이 개선 추세에 있음.

<그림 III-33> 장기손해보험 경과보험료 및 손해액 증가율 추이



□ 장기손해보험은 FY2008 하반기 이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실손 의료보험 제도 개정 관련 특수 효과가 소멸됨으로써 초회보험료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여 FY2009와 FY2010에 각각 21.3%, 15.5%의 성장률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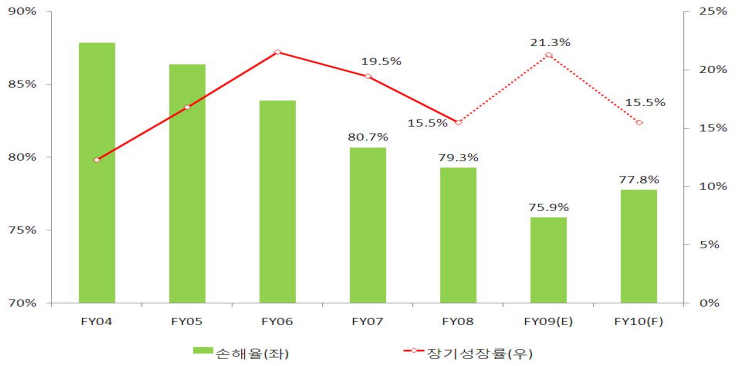
○ 신계약 급증을 주도한 실손 의료보험의 선계약 효과가 이미 종료되고, 중복가입에 대한 사전 확인 강화 및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과 같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실손 건강보험 상품 선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계속보험료가 꾸준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임.

□ 경과보험료 급증으로 하향 추세를 보인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신

계약 축소 및 보유계약의 경과기간 증대 등의 영향으로 FY2010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I-34> 장기손해보험 성장률 및 손해율 전망



<표 III-9>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원수보험료	96,353	112,562	136,802	163,436	188,828	228,983	264,428
성장률	12.3	16.8	21.5	19.5	15.5	21.3	15.5
손해율	87.9	86.4	83.9	80.7	79.3	75.9	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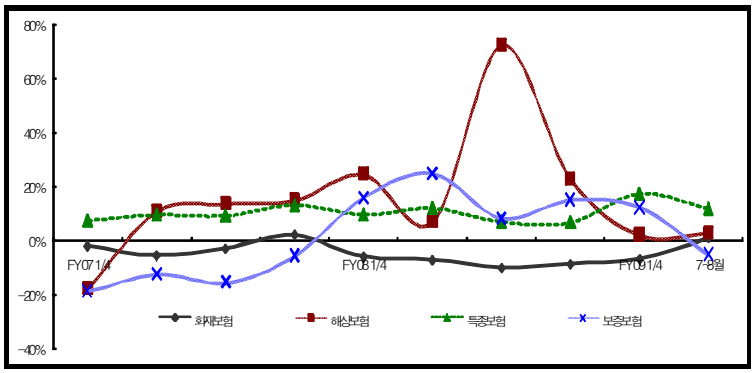
라. 일반손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09 4~8월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1% 성장함.

○ 화재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손해율 감소에 따른 요율 인하 조치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신규가입도 축소되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그림 III-35>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 동향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최근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6% 성장에 그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 및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건설공사보험 등의 성장으로 15.1% 성장하였으며, 보증보험도 5.3% 성장함.

□ 일반손해보험은 FY2009에는 9.4%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0 역시 특종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8.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율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와 종합보험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해상보험은 환율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나,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성장세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FY2009 적하보험은 환율 하락과 물동량 감소 등으로 1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0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6.2%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선박보험 또한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FY2009에는 -7.7% 성장이 예상되지만, FY2010은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성장 전환이 전망되며, 최근 가중되고 있는 선박 신규 수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항해보험의 성장으로 선박보험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항공보험은 FY2009에 이어 FY2010에도 6%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해양구조물 등을 담보하는 기타해양보험 또한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증보험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이행보증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기업성 종합보험에 대한 수요 확대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기술보험의 경우 FY2008 경기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이후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FY2009에는 27.8%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FY2010 수입보험료도 FY2009 수준을 유지하면서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책임보험은 FY2010 7.1% 성장이 전망됨.
- 종업원 복지의 수단으로 고성장을 지속중인 상해보험은 FY2009 15.1%의 성장이 예상되며, FY2010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실손 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은 다소 하락한 12.0%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종합보험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면서 FY2010 종합보험은 9.3%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해외원보험을 포함하는 기타 특종보험 또한 FY2010 17.1%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표 III-10>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억원, %)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화재	보험료	3,132	3,075	2,835	2,801	2,692
	성장률	-3.4	-1.8	-7.8	-1.2	-3.9
	비중	6.7	6.4	5.3	4.8	4.2
해상	보험료	6324	6518	8507	8065	8678
	성장률	19.9	3.1	30.5	-5.2	7.6
	비중	13.5	13.6	15.8	13.7	13.6
- 적하	보험료	2,166	2,345	2,836	2,467	2,620
	성장률	0.1	8.3	20.9	-13.0	6.2
	비중	4.6	4.9	5.3	4.2	4.1
- 선박	보험료	2,544	2,805	4,161	3,841	3,921
	성장률	17.4	10.2	48.4	-7.7	2.1
	비중	5.4	5.9	7.7	6.5	6.1
- 항공	보험료	899	631	725	771	825
	성장률	52.5	-29.8	14.8	6.3	7.0
	비중	1.9	1.3	1.3	1.3	1.3
- 기타	보험료	715	737	784	987	1,313
	성장률	100.2	3.1	6.4	25.8	33.1
	비중	1.5	1.5	1.5	1.7	2.1
보증	보험료	11,427	9,940	11,529	12,532	13,823
	성장률	13.5	-13.0	16.0	8.7	10.3
	비중	24.5	20.7	21.4	21.3	21.7
특종	보험료	25,810	28,371	30,901	35,413	38,564
	성장률	9.8	9.9	8.9	14.6	8.9
	비중	55.3	59.2	57.5	60.2	60.5
- 기술	보험료	2,854	2,999	2,646	3,383	3,422
	성장률	-1.1	5.1	-11.8	27.8	1.2
	비중	6.1	6.3	4.9	5.8	5.4
- 책임	보험료	4,775	4,863	5,236	5,546	5,937
	성장률	-5.3	1.8	7.7	5.9	7.1
	비중	10.2	10.2	9.7	9.4	9.3
- 상해	보험료	6,579	7,827	9,194	10,581	11,850
	성장률	43.0	19.0	17.5	15.1	12.0
	비중	14.1	16.3	17.1	18.0	18.6
- 종합	보험료	9,626	9,694	9,930	10,881	11,894
	성장률	3.0	0.7	2.4	9.6	9.3
	비중	20.6	20.2	18.5	18.5	18.7
- 기타	보험료	1,976	2,988	3,893	5,024	5,461
	성장률	20.1	51.2	30.3	29.1	8.7
	비중	4.2	6.2	7.2	8.5	8.6
일반계	보험료	46,692	47,904	53,771	58,811	63,757
	성장률	10.9	2.6	12.2	9.4	8.4

주 :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마. 손해보험 종합

□ FY2010 손해보험산업은 장기손해보험의 두 자릿수 성장률과 일반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며, 자동차보험은 내수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성장률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은 내수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성장 정체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요일제 차량 보험료 인하 등의 제도 변화 요인으로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은 신규계약의 고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건강보험 수요 지속으로 인한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에 힘입어 FY2010에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0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자산운용 환경 개선 및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준비금이 크게 증가하여 10% 이상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I-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FY2008	FY2009(E)	FY2010(F)
원수보험료	자 동 차	10.9	11.0	11.5
	장 기	18.9	22.9	26.4
	일반손보	5.4	5.9	6.4
	개인연금	1.3	1.7	2.2
	퇴직보험	1.0	1.0	0.9
	전 체	37.5	42.4	47.4
	증 가 율	10.3%	13.2%	11.8%
총자산		74.0(12.1%)	83.2(12.4%)	94.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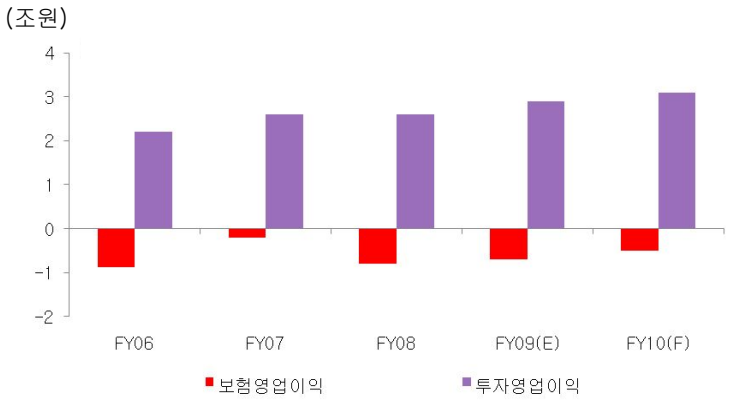
주 :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하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 이익 부문에서는 보험영업 손실이 소폭 개선될 것이며, 투자영업이익의 호조로 전체 수익 규모는 다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손실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장기손해보험의 매출 급증으로 증가한 사업비율이 향후 안정화됨으로써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투자영업이익은 장기손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총자산 규모 및 운용자산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그림 III-36> 손해보험 영업이익 전망



3. 보험산업 종합

□ FY2010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이 성장력을 다소 회복하고 손해보험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6.8%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FY2009에는 71.8조원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FY2010에는 74.5조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FY2007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FY2010에 들어서도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위기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FY2009에는 42.4조원, FY2010에는 47.5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임.

○ 따라서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FY2009 114.2조원에서 FY2010 12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표 III-12>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생명보험	53.8 (6.7)	61.5 (14.4)	66.5 (8.1)	75.1 (13.0)	73.6 (-2.0)	71.8 (-2.5)	74.5 (3.8)
손해보험	23.2 (8.6)	25.7 (10.8)	29.6 (15.0)	34.0 (14.9)	37.5 (10.3)	42.4 (13.2)	47.5 (11.8)
전 체	77.0 (7.2)	87.2 (13.3)	96.0 (10.1)	109.1 (13.6)	111.1 (1.8)	114.2 (2.8)	122.0 (6.8)

주 : ( )안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이며,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 FY2010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20]는 생명보험은 다소 낮아지나 손해보험의 상승으로 FY2008 수준인 10.9%를 유지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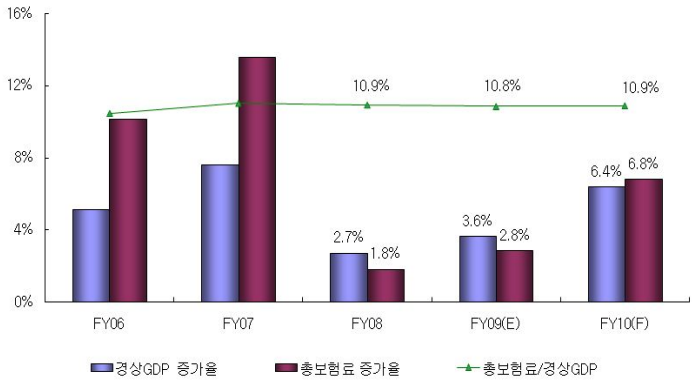
○ 생명보험 침투도는 FY2009 이후 6% 수준으로 하락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4%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됨.

<표 III-13> 보험침투도 전망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생명보험	6.9	7.0	7.2	7.6	7.2	6.8	6.6
손해보험	3.0	2.9	3.2	3.4	3.7	4.0	4.2
전 체	9.9	9.9	10.4	11.0	10.9	10.8	10.9

<그림 III-37> 보험침투도 전망



□ FY2010의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49만 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6.5% 증가가 예상됨.

20) 보험침투도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산출함.

<표 III-14> 1인당 보험료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생명보험	1,118	1,277	1,376	1,550	1,513	1,472	1,525
손해보험	483	534	613	701	771	871	971
전 체	1,602	1,811	1,988	2,251	2,285	2,343	2,495

주 :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로 2006년 11월 자료를 사용함

○ FY2010 1인당 생명보험료와 손해보험료는 전년대비 각각 3.6%, 11.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FY2010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한 약 48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9.6%, 13.0% 증가한 388조 6천억원, 94조원이 예상됨.

<표 III-15>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E)	FY2010(F)
생명보험	211.6 (12.9)	239.4 (13.1)	273.1 (14.1)	305.4 (11.8)	328.3 (7.5)	354.6 (8.0)	388.6 (9.6)
손해보험	43.4 (12.0)	49.3 (13.6)	57.0 (15.6)	66.0 (15.9)	74.0 (12.1)	83.2 (12.4)	94.0 (13.0)
전 체	255.0 (12.7)	288.7 (13.2)	330.1 (14.4)	371.4 (12.5)	402.3 (8.3)	437.8 (8.8)	482.6 (10.2)

주 :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